

보문(寶紋)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이 주 영* · 장 현 주** · 도 주 연*** · 장 정 아****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시간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영산대학교 패션디자인학부 전임강사*** · 밀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Typ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Bomun*

Joo-Young Lee* · Hyun-Joo Jang** · Ju-Yeun Do*** · Jeong-Ah Jang****

Part-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P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Youngs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Miryang National University****

(2003. 5. 29 투고)

ABSTRACT

Bomun(Treasure Pattern), by its formative beauty and its symbol of good-luck, is mixed well with other patterns and produces another luxurious and gorgeous pattern with them.

This study is to sort out *Bomun* patterned materials in the relics of Chosun dynasty, to classify the types of patterns according to its elements and to its arrangement, and to analyze their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erms of fabrics, methods of putting patterns on fabrics, their usage, and symbols and aesthetics.

The types of *Bomun*, in terms of their composition elements, are classified as Individual type, Compound Type I, which is made with another *Bomun*, and Compound Type II, which is compounded with plant patterns or with animal patterns. In terms of its arrangement, it is classified as Dense type, Sparse type, and Picturesque type, and the most popular type is the pattern of the dense type. *Bomun* was depicted in the fabric through a technique called *Jimunbeop*. It was used on both men's and women's clothing. It was mostly used in *Po*(袍) of men's clothing and in *Jeogori*(jacket) of women's clothing. *Bomun* connotes the meaning of good-luck, beating off evil spirits, *Yin* and *Yang* ideology, noble tastes, etc.

Key words : *bomun*(보문: treasure motif), types(유형),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성), symbol(상징성)

I. 서론

전통문양은 각 민족의 자연,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전통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실제 혹은 상상적 物像의 양식화된 형태로서 한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표현된 조형양식이다.

우리 민족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려는 민족정서를 바탕으로 자연숭배사상, 정령숭배사상 등의 토속신앙에 근간을 둔 문양을 창조하였고, 이에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외래 종교사상에 기반한 문양을 창출하여 종류와 표현기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통문양을 전개시켜 왔다. 이러한 전통문양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문양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즐기는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문양에 주술적, 사상적 상징성을 함축하여 현실적인 바램을 기원하는 표현방식으로 삼아 왔다.

우리 전통문양은 소재에 따라 용·봉황·학 등의 동물문양, 연화·당초·보상화·모란 등의 식물문양, 雷紋·亞字 등의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문자·칠보·팔보 등의 기타 길상문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寶紋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문양으로서 문양자체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길상적 상징성으로 인해 생활공간 전반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에 보문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문양과 조합되어 의류용 직물과 자수품, 공예품, 가구, 나전칠기, 금속, 도자기 등에 장식적 모티프로 널리 시문되어 고고한 품격을 나타내는 등 대단히 귀하게 여겨져 왔다. 따라서 보문은 다른 문양과는 달리 주로 상류층에서 선호되었는데, 보문이 사용된 직물의 사용범위를 보면 왕, 왕비, 왕세자의 흉배와 보, 고급관리의 관복과 상류층의 의복, 그리고 가사, 탁의, 방석, 일산, 번, 기, 가마장식, 사경장정 등의 불구용품에 주로 사용되었다.

보문의 이러한 역사적 본질성, 상징성, 조형성, 선호도에 비추어 보문에 내재된 상징성을 이해하고 보문의 미적 특성을 재발견하여 이를 현대화,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문에 대한 연구는 보문의 기원과 종류를 밝히는 등 보

문 자체에 국한되어 있고,¹⁾ 문양 전체를 다루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²⁾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보문이 시문된 패턴의 유형과 조형성에 대한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문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 의상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조선시대의 의복, 침구류, 불구용품, 그리고 문지물 중 보문이 시문된 자료만을 선별하여 보문의 유형을 구성요소와 배치구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조형상의 미적 특성을 직물, 용도, 내재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과 조선시대 출토복식과 사찰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 실증고찰을 병행했다.

































II. 보문의 종류와 상징성

寶紋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문양에서 장생과 길상사상을 중요시 했던 당시의 사회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조선사회는 사회사상면에서 현세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싶어 하는 유교적 현실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서민 기저층에는 여전히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 등의 기존 사상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화의 이중성에 의한 문양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³⁾ 이에 따라 불교, 도교의 길상문양인 보문이 이 시기에 크게 유행할 수 있었다.

보문은 기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동양에서 고대로부터 귀하고 고풍스럽게 여겼던 여덟 가지 보물을 의미하는 雜寶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여덟 가지를 모아 만든 일종의 길상도안을 의미하거나 또는 불가의 七珍이라 하여 극락정토에 있는 일곱 가지 보배를 의미하는 七寶이며, 나머지 하나는 도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가사상에서 여덟 명의 신선이 각각 지니고 있는 물건, 즉 暗八仙을 의미하는 八寶가 그것이다.

보문은 길상적 상징성이라는 공통성을 지니는 가

<표 1> 보문의 종류와 상징성

분류	형태 및 상징성							
잡보 보문	 보주(여의보주) ⇒전지전능한 왕권, 지조화, 만사여의	 산호 ⇒정수, 관운	 전(전보) 돈⇒보배, 복 두개의 동그라미 연결⇒완벽하면서 영원히 단절되지 않음	 서각 무소뿔⇒다복, 장수 한쌍은 행복	 방승 금전지, 마음모핍의 매듭⇒同心力勝, 승리, 길상	 보운문(여의운) 구름머리가 보상화문양⇒장수, 만사여의	 폭 두루마리 책⇒진실의 저장고	 여의(여의두) 만사여의
	 서(보권) 타고난 복, 벼슬, 순수예술, 문자	 영지 여의를 담은 형상⇒불로장생, 기사회생	 와잠 누에⇒태양, 중생(불교), 신선, 不死(도교), 산업(유교)	 활(특경보) 고대악기, 人자모양⇒악이 慶과 통함	 불죽적 부처님발자국⇒현재(아미타불), 과거(관음), 미래(미륵불)의 부처	 정 예식용 그릇⇒세발달린 술, 통치권위	 만자 卍字⇒무한장구, 길상만복, 부단장구	 보 도끼⇒결단, 악에 대한 징계
불교의 보문	 법라 (나보, conch shell) 소리⇒보살과 불갖추어 도음을 이름	 법륜 (윤보, wheel) 바퀴살, 중⇒대법이 영원히 쉬지 않음, 불죽적, 진실, 신성함	 보산 (산보, umbrella) 양산⇒열고 닫음이 자유자재로운 것이 중생교화에 즉함, 자비, 불죽적	 백개 (개보, canopy) 우산모양던개⇒삼천의 밝음과 일체의 낙을 두루 덮음	 연화 (화보, lotus) 연꽃⇒오락 세계에서 나와 물들지 않는 청정, 순결, 완벽, 건강, 장수, 행운	 보병 (병보, vase) 꽃병모양⇒복, 덕, 지가 원만구속하여 새기나 부족하지 않음	 금어 (어보, fish) 물고기⇒건고, 활달, 해탈, 자유	 반장 (장보, endless knot) 실이 얽힌 모양⇒관철, 무한 일체를 밝게 통함, 장수
	 보검 (청봉보검, sword) 呂洞賓⇒지혜, 통찰력(불교), 악에 대한 승리(도교)	 어고 (장고, 도장, fish drum) 張果老(타악기)	 화반 (옥화람, basket of flowers) 藍采和(꽃바구니) ⇒아름다움, 조화	 연화 (조리, lotus) 何仙姑(연꽃)⇒가정	 형적 (옥적, 통소, flute) 韓湘子(피리)⇒기쁨	 호로 (호리병, gourd) 李鐵拐(표주박)⇒制魔, 神藥, 仙藥 사승만장	 선자 (옥선, fan) 漢鐘離(부채)⇒도술, 벽사, 위엄, 호신	 음양판 (간판, castanets) 曹國舅⇒연극, 예술

운데 개개의 문양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잡보,⁴⁾ 불교,⁵⁾ 도교⁶⁾ 등 기원에 따라 보문의 종류와 상징성을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잡보는 불교와 도교 보문의 시원으로서 중국에서 송, 원시기에 이미 유행하였으며 사람들이 길상을 추구하는 기물들을 도안화한 것이다. 잡보의 종류는 <표 1>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여의보주, 산호, 전, 서각, 방승, 보운, 폭, 여의두, 서, 영지, 와잠, 경, 불죽적, 정, 만자, 보 등의 길상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⁷⁾

불교의 보문은 칠보와 팔보가 있다. 먼저 칠보는 흔히 7개의 진귀한 보물⁸⁾을 말하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칠보는 문양으로 사용되는 칠보로서 전문왕⁹⁾의 칠보를 말한다. 전문왕의 칠보에는 輪寶, 象寶, 如意珠寶, 主藏臣寶, 馬寶, 將寶, 女寶 등의 7개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불구 수식물에서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이것은 잡보, 도교의 보문, 불교의 보문의 몇 가지와 그 형태가 비슷하다. 즉 윤보는 잡보의 전

보, 상보는 잡보의 서각, 여의주보는 도교의 보문 중 호리병, 주장신보는 불교의 팔보 중 보병, 마보는 잡보의 경보, 장보는 잡보의 서보, 여보는 잡보의 방승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음으로 팔보는 잡보의 문양 중 몇 가지가 점차 8개의 한자로 정형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¹¹⁾ 즉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8개의 상징물을 팔보라 하고 이들을 도안화한 길상문양을 팔보문 또는 팔길상문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명, 청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특히 발달하여 나타났다.

도교의 보문은 암팔선이라고도 하며, 고대 전설 중 8명의 신선이 지니고 있는 기물 8개를 도안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²⁾ 팔보는 寶劍[검], 魚鼓[장고], 花盤[꽃바구니], 蓮花[연꽃], 橫笛[통소], 葫蘆[호리병], 扇子[부채], 陰陽板[소라악기] 등이다.¹³⁾ 이는 도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불교사상과 일반적인 길상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Ⅲ. 보문의 조형성

보문은 길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물을 문양화한 것이다. 보문의 조형성을 구성요소별·배치구도별 유형과 직물, 용도, 내재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문의 조형성을 고찰하기 위한 실증자료로 출토복식자료와 사찰소장자료를 사용하였다. 출토복식자료는 출토복식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였고,¹⁴⁾ 사찰직물은 흑석사와 통도사에 소장된 자료를 실고찰하였

다. 시기구분은 편의상 조선 건국초(1392년)부터 임란(1592년) 전까지를 제1기, 임란부터 영조대(1724년) 전까지를 제2기, 영조대부터 국말까지를 제3기로 구분한다.¹⁵⁾ 자료내역은 <표 2>와 같다.

실증고찰자료는 출토복식자료 65점, 사찰소장자료 48점 등 총 113점을 사용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출토복식자료는 제3기로 갈수록 유물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찰소장자료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출토되는 사례보다는 소장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1. 유형

1) 구성요소별

구성요소에 따른 보문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3>과 <그림 1>에 의하면 구성요소에 따른 보문의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다시 보문과 보문이 조합된 복합형 I 과 보문양과 식물문, 동물문, 기하문, 기타 길상문 등이 조합된 복합형 II로 분류된다. 보문 총 113점 중 단독형은 12점으로 10.6%에 불과하며, 복합형은 101점으로 89.4%라는 많은 비중을 나타낸다. 그리고 복합형 I 과 복합형 II의 비율은 각각 43.4%, 4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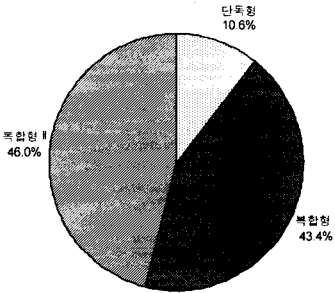
단독형은 모두 보운문¹⁶⁾이 사용되었다(그림 2). 보운 단독문양은 한가지 문양으로 면을 가득 채움으

<표 2> 보문의 실증자료 내역

시기 항목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유물수
출토복식 자료	홍계강, 김홍조, 정은, 정응두, 이석명, 신여관, 전박장군, 원주원씨, 양천려씨, 은진송씨, 순천김씨, 청주한씨, 단양우씨 의 출토복식 33점	김위, 홍우협, 의원군, 정양우, 정태제, 김철의 딸, 남양홍씨, 안동권씨의 출토복식 26점	이익정, 홍희준, 이연응, 안동김씨의 출토복식 6점	65점
사찰소장 자료	흑석사 소장품 5점	통도사 소장품 18점	통도사 소장품 25점	48점
시기별 유물수	38점	44점	31점	11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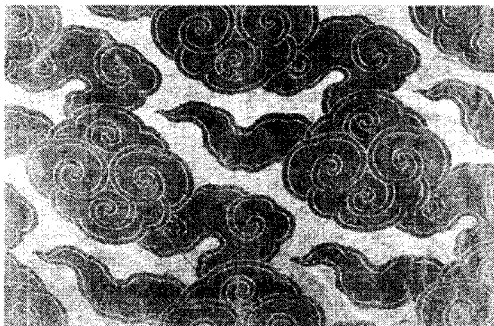
<표 3>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분류	구성요소	문양의 종류	유물수(출현율: %)
단독형	보문	보운문	12(10.6)
복합형	복합형 I	보문+보문	49(43.4)
		보문+동물문	11(9.7)
	복합형 II	보문+식물문	33(29.2)
		보문+동물문+식물문	1(0.9)
		보문+식물문+길상문(문자)	1(0.9)
		보문+동물문+길상(구름)	1(0.9)
		보문+식물문+기하문	1(0.9)
		보문+길상문(운문, 문자)	4(3.5)
소 계			113(100)



<그림 1>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로써 규칙적이고 장엄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실제 보운 단독문양은 주로 남자의 포제나 이불 등에 사용되었고 여자의 경우 저고리 끝동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등 남자복식에 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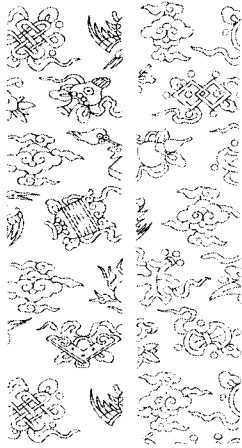


<그림 2> 보운 단독형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59)

복합형 I은 보운문을 중심으로 다른 보문이 조합되었다. 주로 사용된 보문은 잡보의 여의두, 여의보주, 산호, 전, 서각, 방승, 보, 서보, 와잠, 기자 등이고(그림 3), 그 외 불교의 반장(장보)과 음양판, 그리고 도교의 호리병 등도 근소하게 사용되었다(그림 4). 더욱이 사찰소장자료의 경우에도 불교의 칠보, 팔보만이 사용되지 않고 잡보와 도교의 팔보 등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보문의 종류 중 잡보의 보문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잡보의 보문이 다소 직선적이고 정형적이고 양식적인데 비해 불교와 도교의 보문은 곡선적이고 자유롭고 사실적이어서 보문이라 하더라도 이미지가 다른 요소들을 조합시킴으로써 직선과 곡선의 조화미를 연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 복합형 I(잡보+잡보)
(朝鮮時代 皮履[織物]의 무늬,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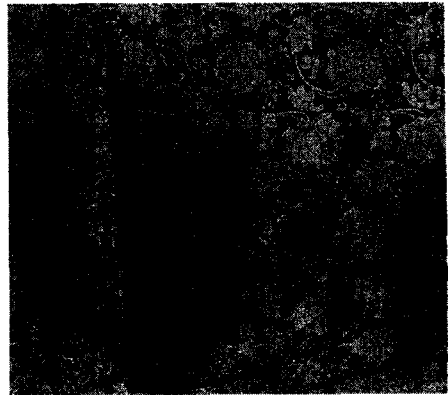
<그림 4> 복합형 I (좌: 잡보+불교, 우: 잡보+도교)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문양집, p. 31)

복합형 I의 경우 칠보, 팔보에 준해 문양의 개수가 7~8개가 조합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개 3~5개의 보문이 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모든 문양들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적이고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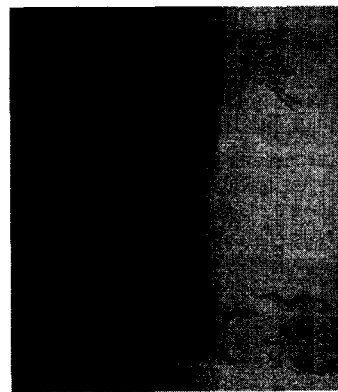
복합형 II는 보문과 식물문, 보문과 동물문이 주로 조합되었으며, 이중 보문과 식물문의 조합이 63.5%로 가장 많고, 보문과 동물문의 조합은 21.6% 정도이며, 그 외 보문·식물문·동물문의 조합, 보문·식물문·길상문의 조합, 보문·동물문·길상문의 조합, 보문·식물문·기하문의 조합, 보문·길상문의 조합 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먼저 보문과 식물문이 조합된 경우 주로 사용된 보문은 잡보이고 식물문은 화문인데 화문은 연화, 목단, 당초, 매화, 소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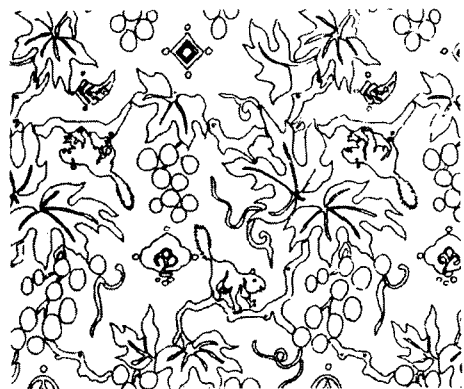
화문의 표현방법을 보면 꽃잎은 화려하고 풍성하고 줄기는 유기적인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동적이고 사실적인 화문에 다소 평면적이고 단순하고 정적이고 양식화된 보문을 조합시킴으로써 패턴에 생동감과 율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보문과 화문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는 복합형 I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적이고 평면적인 느낌이 나지만 보문보다 화문이 큰 경우는 크기에 의한 대비효과에 의해 새로운 흥미와 역동감이 연출된다.



<그림 5> 복합형 II(보문+식물문)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p. 133)



<그림 6> 복합형 II(보문+동물문)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p. 8)



<그림 7> 복합형 II(보문+식물문+동물문)
(조선시대복식연구, p. 108)



<그림 8> 복합형II(보문+문자문)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문양집,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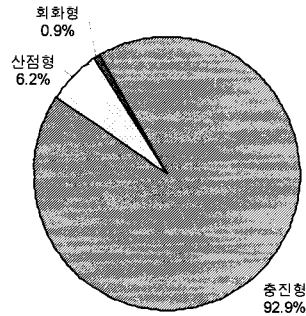
다음으로 보문과 동물문이 조합된 경우 주로 사용된 보문은 보운이고, 동물문은 용과 학이며(그림 6), 보문과 동물문, 식물문이 조합된 경우 드물게 다람쥐의 모습도 보인다(그림 7). 다람쥐와 포도문이 조합된 경우는 몇 점 있으나¹⁷⁾ <그림 7>과 같이 다람쥐와 포도문이 여의두, 전, 방승, 서각 등의 보문과 함께 조합된 경우는 학계에서 처음 보고되는 유일한 것이다. 다람쥐의 형상은 포도줄기에 앉아 포도송이를 감싸쥐고 있기도 하고 그냥 포도줄기에 앉아 있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다. 이와같이 보문은 주로 서화, 서수문양과 조합되었으며, 이 외에 壽, 福 등의 길상문자문양과 조합되기도 했는데(그림 8) 이는 보문의 상징성에 서화, 서수, 문자문양의 상징성까지 더함으로써 보문의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에 따른 보문의 사용순위를 살펴보면 남자옷에는 보문+보문(14점), 보문 단독문양(6점), 보문+식물문(4점)의 순으로 복합형 I 인 보문과 보문의 조합이 주로 사용되었고, 여자옷에는 보문+식물문(18점), 보문+보문(4점), 보문+동물문(4점), 보문(1

점)의 순으로 복합형 II 중 보문과 식물문의 조합이 주로 사용되었다.

2) 배치구도별

배치구도에 따른 보문의 유형은 충전형,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4>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배치구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표 4>와 <그림 9>에 의하면 총 113점 중 충전형이 92.9%, 산점형이 6.2%, 회화형이 0.9%로 충전형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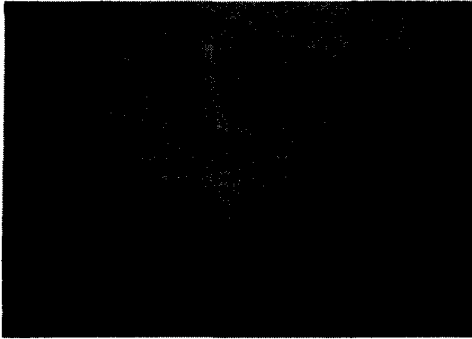
충진형은 대상 전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배치구도로서 대부분 연속문으로 표현된다. 출토복식과 사찰소장 자료 대부분이 충전형으로 되어 있다.

충진형의 보문은 보문 단독으로 또는 보문과 다른 문양이 조합되어 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중후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그림 2, 3, 4, 5, 7,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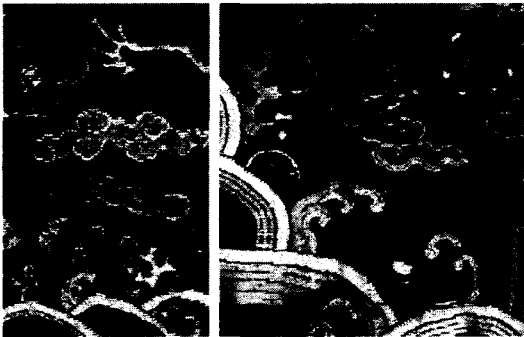
산점형은 장식하려는 표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구도이다. 이때 단위문은 한 종류인 경우도 있

<표 4> 배치구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유형	시기	유물수(출현율: %)			시기별 소계
		제 1기	제2기	제3기	
충진형		38	43	24	105(92.9)
산점형		0	1	6	7(6.2)
회화형		0	0	1	1(0.9)
유형별 소계		38(33.6)	44(39.0)	31(27.4)	113(100)



<그림 10> 산점형(통도사 소장)



<그림 11> 회화형(통도사 소장)

고, 두 종류인 경우도 있는데 보문에는 주로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산점형은 출토복식자료에 2점, 사찰소장 자료에 6점으로 사용례가 많지 않으며, 원단 직물이 재단되지 않고 그대로 여자 치마의 밑단이나 불단을 덮는 탁의에 사용되어 산점형의 문양 자체가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식을 위한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점형의 보문은 충전형에 비해 여백의미를 느끼게 하며, 단정하고 담백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규칙적인 배치구도로 인해 다소 단조롭고 딱딱한 이미지도 있지만 문양자체의 세련됨으로 장식성이 강조되고 있다(그림 10).

회화형은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서 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하는 배치구도이다. 회화형은 우리나라 의복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전통복식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八寶平水, 八寶立水라 하여 고급 관리와 귀족부인의 의복에 사용되었다(18).

회화형은 사찰소장자료에 단 1점 보이며, 불단을 덮는 탁의가 그것인데 이 역시 산점형과 마찬가지로 불단 아래로 늘어지는 탁의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장식효과를 내고 있다.

회화형의 보문은 다소 규칙적인 충전형과 산점형과는 달리 주로 색사와 금사를 사용한 장화단으로 제작되어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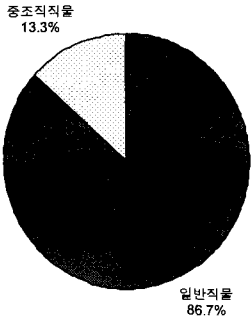
2. 직물

보문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은 크게 일반 직물과 중조직 직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5>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표 5>와 <그림 12>에 의하면 보문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은 일반직물과 중조직직물로 분류되고, 전자는 다시 문주, 문능, 문단, 문사 등으로 분류되고 후자는 직금단, 장화단, 망단 등으로 분류된다. 유형

<표 5> 보문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분류	유형수(출현율: %)			유형별 소계	
	제1기	제2기	제3기		
일반 직물	紋 紬	0	1	0	98(86.7)
	紋 綾	0	1	4	
	紋 緞	32	39	16	
	紋 紗	3	0	2	
중조직 직물	織金緞	3	3	2	15(13.3)
	壯花緞	0	0	1	
	蟒 緞	0	0	6	
시기별 소계		38(33.6)	44(39.0)	31(27.4)	113(100)



<그림 12> 보문이 사용된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별 출현율을 보면 일반직물은 86.7%, 중조직직물은 13.3%로 일반직물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고, 이 중 주자직의 문단이 77.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보문이 사용된 중조직은 출토복식자료 65점 중 4점, 사찰소장자료 48점 중 12점으로 사찰소장자료에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출토복식의 경우 저고리의 깃, 끝동 등 의복의 일부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반면 사찰소장품의 경우 전체에 사용되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중조직이 당시 귀한 직물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조직은 일반직보다 문양을 표현하는데 보다 정교한 기술을 요하므로 직물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고가의 화려한 직물로 현실세계의 의복을 만들기 보다는 내세관이 담겨있는 불구용품, 즉 사리보, 사리병 방석, 가사, 탁의 등을 만듦으로써 길상적 상징성과 함께 종교적 신념과 염원을 더욱 공공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문은 모두 지문법과 직금법, 즉 직조법에 의해 문양이 표현되었다. 일반직물에는 바탕과 무늬부분에 동일한 색의 실을 사용하면서 조직에 변화를 주어 문양을 표현하는 지문법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은은하고 온화한 미를 표현하였고, 중조직 직물에는 금사, 은사, 색사 등을 사용하여 문양을 바탕에서 분리시켜 표현하는 직금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고 현란한 미를 표현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총 113점의 유물 중 지문법은 98점(86.7%), 직금법은 15점(13.3%)으로 지문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이 중 직금법은 용례가 적은 가운데 출토복식자료에 4점, 사찰소장자료에 11점으로 주로 불구용품에 사용되었다. 즉 장식 및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사찰직물은 직금법으로 제작되어 일반직물보다 훨씬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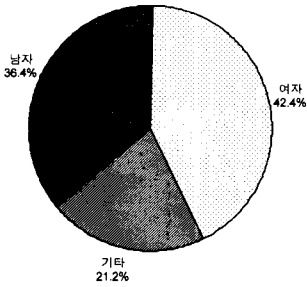
보문이 사용된 복식의 성별·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고, 이 중 복식의 유형별 출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13>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보문은 남녀복식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출현율도 각각 37%, 41.5%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보문이 사용된 의복 부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남자옷의 경우 포류와 대금형 상의에는 의복 전체에 사용되었고, 저고리에는 전체로도 사용되고 부분으로도 사용되었다. 부분사용의 경우에도 소매를 제외한 깃, 쇄, 길, 겹마기 등으로 사용부위가 비

<표 6> 보문이 사용된 복식의 성별·유형별 출현율

유형별 시기별	유물수(출현율: %)												시기별 소계
	남자			여자				기타					
	포	대금형 상의	저고리	포	저고리	치마	부속품	이불	지요	베개	현훈	보공용 직물	
제1기	6	3	3	0	13	4	1	3	0	0	0	0	33(50.8)
제2기	5	3	0	2	4	2	0	3	3	1	2	1	26(40.0)
제3기	4	0	0	0	0	1	0	1	0	0	0	0	6(9.2)
유형별 소계	15 (23.1)	6 (9.2)	3 (4.6)	2 (3.1)	17 (26.2)	7 (10.8)	1 (1.5)	7 (10.8)	3 (4.6)	1 (1.5)	2 (3.1)	1 (1.5)	65(100)
성별 소계	24(37.0)			27(41.5)				14(21.5)					



<그림 13> 보문이 사용된 복식의 성별 출현율

교적 넓어 전체로 사용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자옷의 경우 포류와 치마에는 의복 전체에 사용되었으나 저고리에는 주로 부분으로 사용되었고 사용부위도 매우 다양하다. 즉, 깃-섶-길하부-결마기-끝동, 깃-섶-길하부, 깃-길-결마기, 길하부-결마기, 깃-섶-결마기-끝동, 깃-섶-끝동, 섶-끝동, 끝동에만 사용된 경우 등 주로 의복 구성선을 이용하여 면을 분할함으로써 색상조화, 재질조화, 문양조화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표 6>과 <그림 13>에 의해 보문의 사용범위를 보면 남자옷의 경우 포제, 대금형 상의, 저고리 등이며 이 중 포제가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여자옷의 경우 포제, 저고리, 치마 등이며 이 중 저고리가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기타의 경우 이불, 베개, 지요, 현훈 등이며 이 중 이불이 50%로 많은 비중을 나타낸다.

남자 포제의 경우 보문이 사용된 총 15점 중 단령과 철릭이 각각 6점, 5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직령, 답호, 장의, 창의는 각 1점씩이다. 이는 단령과 철릭이 다른 포제에 비해 상당히 비중있는 사회적 역할을 점했던 당시의 의생활 문화에 기인한다. 즉 단령은 예로써 교체할 때 착용되는 의복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철릭은 평상시 교체할 때 널리 선호되었던 의복이었음¹⁹⁾을 고려해 볼 때 두 포제의 사회적 역할과 보문의 고귀한 이미지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저고리와 기타의 경우도 주로 왕실종친이나 상류 양반층에 사용되어 사회적 신분과 보문의 고귀한 길상적 상징성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문의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제1기에서 제2, 3기

로 갈수록 출현율이 낮아진다. 특히 제3기에 출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은 출토사례의 감소로 인한 복식자료의 희소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복식사에서 왕왕 있는 경우다.

4. 보문의 내재미

보문의 내재미는 상징성, 사상성, 귀족취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문은 상징적이다.

먼저 보문은 길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잡보, 불교, 도교의 보문은 궁극적으로 모두 길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가운데 잡보의 보문은 길상의 의미가 강하고, 불교의 보문은 경축, 기원의 의미가 강하며, 도교의 보문은 三多思想인 多壽, 多福, 多男의 의미가 강하다. 이 중 잡보는 특히 길상의 의미가 강하며 대개 자손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풍요롭게 오래 살며 항상 만사가 여의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상징성으로 인해 예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상류사회에서 널리 선호되었다²⁰⁾.

다음으로 보문은 벽사의 상징성을 지닌다. 보문은 보통 리본이나 끈으로 감겨 있는데 이러한 끈들은 부적의 신비스러운 광채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의 둘레를 매다는 붉은색 천조각으로서 부적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용인되었다²¹⁾. 즉 보문은 상서롭게 기쁜 일을 가져다 주고 잡귀의 근접을 막아 줄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어 벽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같이 길상과 벽사의 상징성을 지닌 보문을 복식과 불구용품, 그리고 신분을 표식하는 주된 소품인 보와 흉배 등에 사용함으로써 물질적인 것에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길리와 신변의 안녕, 그리고 사회적 지위 유지라는 심리적 만족감 등을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문은 사상적이다. 즉 보문에는 陰陽思想이 내포되어 있다.

음양사상은 모든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범주로 나뉘고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하고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음양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직선적이고 정적이고 평면적인 속성은 陰에 해당하고, 곡선적이고 동적이고 입체적인 속성은 陽에 해당한다²²⁾.

이에 직선적인 보문과 곡선적인 보문의 조합<그림 14>, 직선적이고 정적이고 평면적인 보문과 곡선적이고 동적이고 입체적인 화문의 조합<그림 15>, 그리고 직선적인 만자문, 격자문과 곡선적인 보문의 조합<그림 16> 등은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음양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보문의 길상적 상징성에 음양사상이 더해짐으로써 보문의 상징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양 자체의 형상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즉 錢寶의 형상을 보면 겉이 둥글고 속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것을 상징한다²³⁾. 이러한 天圓地方은 음



<그림 16> 직선과 곡선의 조화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p.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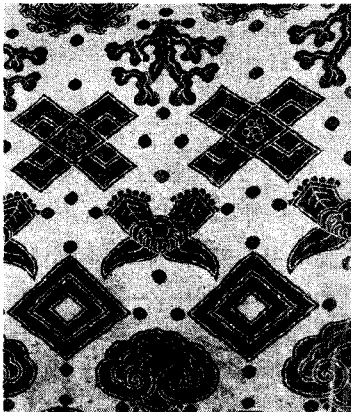
양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하늘과 둥근 것은 양을 상징하고 땅과 곧은 것은 음을 상징하므로 곡선과 직선의 조화는 곧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문은 귀족취향적이다.

보문은 왕실중친과 상류 양반층과 그 부녀자들의 복식에 주로 시문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귀족취향적이라고 생각된다. 상류 양반층의 관직을 보면, 이조판서(정2품), 병조참의(정3품), 판결사(정3품), 군수(종4품), 현감(종6품), 병마동첨절도사(정3품), 이판, 판서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문은 고급 견직물에 지문법 또는 직금법으로 시문되어 매우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특히 사찰소장자료 중에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보문이 많은데 당시 국내에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회화형의 직금단도 있어 특징적이다.

이와같이 길상과 벽사, 음양조화의 상징성을 겸하고 있는 보문은 엄격한 신분구조를 유지했던 조선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표식하거나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일부 상류층 사람들의 귀족취향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 직선과 곡선의 조화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p. 190)



<그림 15> 직선과 곡선의 조화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문양집, p. 23)

V. 결 론

이상에서 보문은 문양자체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길상적 상징성으로 인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문양과 조합되어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독특하고 정제된 새로운 조형미를 연출함으로써 의복과 기타 생활 조형에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문은 기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고대로부터 귀하고 고풍스럽게 여겼던 여덟 가지 보물을 의미하는 잡보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여덟가지 보배로운 기물을 의미하거나 극락정도에 있는 일곱 가지 보배를 의미하는 팔보 또는 칠보이며, 나머지 하나는 도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덟명의 신선이 각각 지니고 있는 물건, 즉 암팔선을 의미하는 팔보가 그것이다. 보문은 기원에 무관하게 모두 길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2. 보문의 유형은 먼저 구성요소에 따라 단독형(10.6%)과 복합형(89.4%)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보문과 보문이 조합된 복합형 I(43.4%)과 보문과 식물문, 동물문, 기타 길상문 등이 조합된 복합형 II(46.0%)로 분류된다. 단독형은 대부분 보운 단독문이고, 복합형 I은 보운문을 중심으로 잡보의 여의두, 여의보주, 산호, 전, 서각, 방승, 보, 서보, 와잠, 곤자 등이 조합되었으며, 복합형 II는 보문을 중심으로 연화, 목단, 당초, 매화, 소화 등의 식물문과 용, 학, 다람쥐 등의 동물문이 주로 조합되었다. 다음으로 보문은 배치구도에 따라 충전형(92.9%), 산점형(6.2%), 회화형(0.9%)으로 분류된다. 보문은 대부분 충전형으로 되어 있고, 산점형과 회화형은 여자의 치마 밑단이나 탁의의 가장자리 등 장식에 위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었다.

3. 보문은 문주, 문능, 문단, 문사 등의 일반 직물(86.7%)과 직금단, 장화단, 망단 등의 중조직 직물(13.3%)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중 일반직물의 문단(77.0%)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문양의 시문방법은 지문법(86.7%)과 직금법(13.3%)이 주로 사용되

었으며, 이 중 지문법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직금법은 지문법보다 화려하고 현란한 미를 연출하므로 일반 복식보다 장식 및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볼구용품에 주로 사용되었다.

4. 보문은 남녀복식에 모두 사용되었다. 사용범위는 남자옷의 경우(37%) 포제, 대금형 상의, 저고리 등인데 포제에 주로 사용되었고, 여자옷의 경우(41.5%) 포제, 저고리, 치마 등인데 저고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의 경우(21.5%) 이불, 베개, 지요, 현훈 등인데 이불에 주로 사용되었다. 보문이 사용된 의복 부위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남자옷의 경우 주로 의복 전체에 사용되었고, 여자옷의 경우 포류와 치마에는 의복 전체에 사용되었으나 저고리에는 부분으로 사용되었고 사용부위도 다양하다. 부분사용의 경우 의복의 구성선을 이용하여 면을 분할함으로써 색상조화, 재질조화, 문양조화 등 세련되고 재치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5. 보문에는 길상과 벽사의 상징성, 음양사상, 귀족취향성 등이 내재되어 있다. 보문은 길리를 추구하고 잡귀의 근절을 막아준다는 길상과 벽사의 상징성과 함께 여기에 음양사상에 준해 직선적이고 정적이고 평면적인 陰의 속성을 지닌 문양과 곡선적이고 동적이고 입체적인 陽의 속성을 지닌 문양이 조화되거나, 錢寶와 같이 형상 자체가 天圓地方, 즉 음양조화를 상징하는 문양이 사용되는 등 음양조화사상이 더해짐으로써 상징성이 한층 심화되었다. 이처럼 길상과 벽사, 음양조화의 상징성을 겸하고 있는 보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신분에서 선호되거나 고급 견직물에 지문법과 직금법으로 시문되어 귀족취향의 미를 연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찰소장자료는 실고찰했지만 출토복식자료는 선행된 보고서와 책을 참고하였으므로 문양의 크기, 표현된 선의 특징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에 제한점이 있어 이후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임재영 (1978). 우리나라 七寶紋樣에 관한 研究 -현존유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河美子 (1997). 寶紋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七寶, 八寶紋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고부자 (2002). 조선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出土유물을 중심으로-.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단국대학교 출판부.
노자키 세이키 지음. 변영섭·안영길 옮김 (1992). 중국 길상도안. 예경.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89). 傳統工藝技法의 産業化를 爲한 調査研究 -紋樣을 中心으로-.
吳勤在 (1987). 韓國紋樣의 展開(菱花篇). 미진사.
林永周 (1986). 傳統紋樣 資料集. 미진사.
- 3)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1989). 앞의 논문, p. 12.
- 4) 임영주 (1991).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pp. 13-14.
河美子 (1997). 앞의 논문, pp. 31-33.
- 5)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 227.
河美子 (1997). 앞의 논문, p. 13.
- 6) 심연옥 (2002). 앞의 논문, p. 145.
河美子 (1997). 앞의 논문, p. 20.
- 7) 趙豐 (1999). 織繡珍品. 藝紗堂 服飾出版, p. 238.
- 8) 무량수경에서는 금, 은, 파리, 마노, 거거, 유리, 산호를 말하고, 법화경에서는 금, 은, 마노, 유리, 거거, 진주, 매괴를 말한다.
- 9) 몸에 32相을 갖추고 즉위할 때 하늘에서 운보를 감득하여 이것을 굴러가며 악을 없애 버리고 천하를 위업으로 굴복시킨다는 인도 신화상의 왕으로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이다.
- 10) 하미자 (1997). 앞의 논문, pp. 14-16.
- 11) 趙豐 (1999). 앞의 책, p. 238.
- 12) 인물형태로 八仙(여덟 명의 神仙)을 묘사한 것은 明八仙이라 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 8개를 그려 八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우 暗八仙이라 한다(허균, (2002). 전통문양. 대원사, p. 117 참조).
- 13) 河美子 (1997). 앞의 논문, pp. 17-20.
- 14) 한국복식 1호-20호 (1983-2002).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조선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2002).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002). 조선의 옷매무새. 민속원.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문양집.
이순원·유효선·조우현 (2000).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김영자·김명숙·장인우·이수봉 (1999). 朝鮮時代服飾研究. 학연문화사.
- 榮州市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金英淑 (1997). 朝鮮前期 佛服藏織物의 理解. 미술문화.
장인우 (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학연문화사.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온양민속박물관 (1989).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査報告書.
- 15) 권영숙·이주영 (1995).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제도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연구보고, 21, p. 122.
- 16) 구름문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그림 2>에서 보듯이 보상화가 활짝 핀 모양처럼 네 개의 모서리가 꽃잎처럼 표현된 구름모양을 특히 보운문이라 한다. 이는 서방적 문양요소인 보상당초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융성하였던 불교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임영주와 하미자는 이러한 보운문양을 보문양의 하나로 분류하였다(임영주 (1986). 앞의 책, p. 24 : 하미자 (1997). 앞의 논문)
- 17) 다람쥐와 포도문이 조합된 패턴은 홍우협(1655~1691)의 유품 중 보공용 직물과 안동권씨(1664~1722)의 유품 중 당의 길, 저고리의 길, 저고리의 끝동, 천금 등에서 볼 수 있다(김명숙 (1999).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학연문화사, pp. 105-106 : 경기도박물관 (2002). 조선의 옷매무새, p. 48, 57, 60, 76 참조).
- 18) 立水문양은 직선 혹은 곡선이 여러 겹 사선모양으로 겹쳐 구성되는 것으로 무지개와 모양이 비슷하다(周汎·高春明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pp. 590-591 : 허균 (2002). 앞의 책, p. 122).
- 19) 이주영·권영숙 (2000). 조선시대 직령(直領)연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2), pp. 254-255.
- 2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5). 한국의 무늬. 예맥출판사, p. 92.
- 21) 林永周 (1986). 앞의 책, p. 13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5). 앞의 책, p. 96.
- 22) 한국철학회 (1987). 한국 철학사(上). 동명사, p. 83.
- 2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5). 앞의 책, p. 92.